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The Effects of Paternal and Maternal Control on Self-Esteem in School-Age Boys and Girls : The Mediating Role of Autonomy*

이미정(Mi-Jung Lee)[1)]
도현심(Hyun-Sim Doh)[2)]
지연경(Yeon Kyung Chee)[3)]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autonomy on self-esteem, using a sample of 415 school-age children (208 boys and 207 girls) recruited in Seoul.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s revealed a variety of gender-based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among these three variables. Boys with high maternal behavioral control had high levels of self-esteem, whereas girls under low paternal psychological and high behavioral control reported high levels of self-esteem. Boys with high maternal behavioral control and girls with high paternal behavioral control also reported high levels of autonomy. Autonomy was found to exert a positive impact on self-esteem for both boy and girls. Autonomy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behavioral control and self-esteem for boys, and between paternal behavioral control and self-esteem for girl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on autonomy and self-esteem, as well as the relative impact of the opposite sex parent on the development of autonomy and self-esteem in late childhood.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2)]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Key Words :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부와 모의 행동적 통제(paternal and maternal behavioral control), 자율성(autonomy), 자아존중감(self-esteem), 학령기 아동(school-age children).

Ⅰ. 서 론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성격발달 및 생활 만족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대인관계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낮은 성취동기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장윤옥 · 전귀연, 1998; 정희욱, 2003; 홍성흔 · 도현심, 2002). 학령후기 아동들은 사춘기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신체성장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또래관계가 확장되며, 여러 영역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층 현실적으로 자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생긴다(Stipek & Maclver, 1989). 이 시기에 형성된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청소년기 이후까지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보이며(Block & Robinson, 1993), 아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령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의 선행 변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적 요인과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아동과 가장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부모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왔다. 부모의 영향력 가운데 양육행동은 대표적으로 연구된 변인으로서, 특히 부모의 통제는 점차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발현되는 학령후기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있어 중요한 양육행동 요인에 속한다(Baumrind, 1991; Maccoby & Martin, 1983). 전통적으로 애정과 상반되는 부정적 양육, 즉, 강압적, 적대적 또는 거부적 양육행동으로 알려졌던 부모의 통제는 Barber와 동료들에 의해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Barber, 1996; Barber, Olsen, & Shagle, 1994). 심리적 통제는 자아 과정, 자기표현, 정서와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발달에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로,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감정과 표현을 무시하고 억누르며, 자녀의 생각, 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에,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부모의 시도로, 자녀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의 정도, 즉 부모의 감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분과 더불어, 최근 들어 두 가지 양상의 통제가 각각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의존심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초래하며(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2008; 정윤주, 2004; Barber & Harmon, 2002),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덜 야기한다는 것이다(김희화, 2003; Gray & Steinberg; 1999;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Steinberg & Fletcher, 1994).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이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아비난, 의존심, 문제행동, 낮은 자아존중감 등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 및 발달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박성연 외, 2008; 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Barber & Shagle, 1992; 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Gecas & Schwalbe, 198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령후기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장경문, 2011) 이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한편,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력과 달리,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행동적 통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부모의 관리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김은정,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도 항상 지도 및 감독을 받는 아동, 지도는 받으나 감독은 받지 않는 아동, 지도는 받지 않고 감독만 받는 아동, 지도 및 감독을 모두 받지 않는 아동 등 네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지도 및 감독을 모두 받지 않는 아동은 자기 효능감이 낮았다(Coley & Hoffman, 1996). 또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지지행동과 마찬가지로 높은 학업성취나 높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ber, Stolz, & Olsen, 2005). 이와 같이 학령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양육의 통제 측면이 아동의 발달결과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령후기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통제가 이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자율성 발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학령후기 아동에게 중요한 부모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선행변인 중 하나로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성숙하고 건강한 자율성은 청소년으로의 전환기에 반드시 성취해야할 과업이며, 스스로 행동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김희화, 2009; 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에 근거한다. 그러나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이 아동의 높은 긍정적 정서를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김용희, 2009)가 있는가 하면,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과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전숙영, 2007; Beyers & Goossens, 1999)도 있어, 아동의 자율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자율성에 관한 선행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 그동안 알려져 온 자율성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Noom (1999)은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한 개인의 인지, 정서 및 행동 발달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Noom의 정의에 의하면, 자율성은 목표를 설정하고 유능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지각하는 태도적 자율성과, 자신

감과 개별성을 가지고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지각하는 정서적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조절과 자기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기능적 자율성을 포함한다. Noom의 개념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성과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자율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유능감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한다(김희화, 2009; 장휘숙, 2002; Noom, Dekovic, & Meeus, 1999). 그러나 국내의 경우, 특히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으로, 본 연구는 Noom의 정의를 기초로 이 시기 아동의 자율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자율성은 자아존중감의 선행변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이기도 하다. 부모가 적절한 지지와 격려를 통해 아동이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부모의 방식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은 의존적이며, 독립된 개체로서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박성연 외, 2008; 장경문, 2007; Barber & Buehler, 1996; Steinberg, 1990). 청소년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허용하는 양육행동이 건강한 자율성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들(안도희 · 박귀화 · 정재우, 2008; Soenen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에 근거할 때, 학령후기 아동을 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건강한 자율성 획득을 저해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장경문, 2007; Grolnick, Weiss, McKenzie, & Wrightman, 1996; Steinberg & Dornbusch, 1991)은 이러한 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와 달리 행동적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의 긍정적 영향력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됨에 기초할 때(김희화, 2003; Gray & Steinberg; 1999; Pettit et. al., 2001; Steinberg & Fletcher, 1994),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율성은 각각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 등 세 가지 변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을 가정케 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나 부모의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즉,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결정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였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Soenens et al., 2007). 이러한 가정이 가능하다면,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율성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가 청소년 및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보고(김수희 · 박성연, 2009; 소미강, 2008; 주인자, 2006; Barber, 1996; Bean & Northrup, 2009)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통제가 부모의 성과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며,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어머니의 통제에 초점을 두었으며(이지인 · 박성연, 2008; 전숙영, 2007; 정윤주, 2004), 아버지의 통제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과 부부공동양육(co-parenting)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남녀 아동의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아동의 지각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행동과 그 이면의 동기를 자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의도와 반대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영애 · 정옥분 1996; Rohner & Pettengill, 1985). 즉,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통제와 개인 내적 요인인 아동의 자율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리라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와 모의 통제 및 아동의 자율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롯하여 부와 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부와 모의 통제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와 모의 통제는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남녀 아동의 자율성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와 모의 통제는 남녀 아동의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남녀 아동의 자율성은 부와 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415명의 남녀 아동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208명(50.1%)과 207명(49.9%)이었으며, 연령은 11세가 264명(63.6%), 12세가 151명(36.4%)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7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보면, 아버지는 40-44세가 188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5-49세가 138명(33.3%)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44세가 204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미만이 122명(29.4%)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97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135명(32.5%),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182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

교 졸업이 154명(37.1%)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아동에 의해 보고되었다. 모든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4점 Likert식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부모의 통제

부모의 통제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주연과 도현심 (2011)의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척도는 Barber와 동료들(2005)의 척도를 번역・역번역(backtranslation)한 것으로 원척도는 지지,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8문항) 및 행동적 통제(5문항) 요인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김지현・도현심・신나나・김민정, 2011)를 포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국내 연구결과들(김수희・박성연, 2009; 조주연・도현심, 2011)에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심리적 통제 요인의 경우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행동적 통제 요인의 경우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등이 포함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76과 .81이었으며, 행동적 통제는 각각 .77, .83이었다.

2) 아동의 자율성

아동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Bekker(1991)가 개발한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Noom(1999)이 재구성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령후기 아동에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아동학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이 척도는 태도적 자율성(5문항), 정서적 자율성(5문항) 및 기능적 자율성(5문항)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도적 자율성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지각을, 정서적 자율성은 자신감과 개별성을 가지고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지각하는 능력을, 그리고 기능적 자율성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조절과 자기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 태도적 자율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를, 정서적 자율성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기능적 자율성은 '새로 맡은 일을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태도적, 정서적 및 기능적 자율성 각각 .67, .55 및 .6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하위요인의 의미를 모두 통합하여 일원화된 변인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74로서 적절한 수준에 해당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그들에게 이야기 한다.')을 제외하고 총 1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김연희(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척도는 총체

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되어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예 : 정희욱, 2003; 홍성흔 · 도현심, 2002; Owen, Mortimer, & Michael, 1996; Plunkett, Henry, Robinson, Behnke, & Falcon, 2007).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괜찮게 생각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을 제외한 후의 신뢰도는 .85이었으며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M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2010년 2월에 수집되었으며, 조사 대상 아동들이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배부된 480부의 질문지 중 463부가 회수되었으며(약 96%의 회수율), 이 중 답변이 불완전한 경우(31부)와 한 쪽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17부)의 질문지들을 제외한 총 4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분석으로 연구변인들의 성차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t*-test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통제 및 아동의 자율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자율성이 부모의 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 이하(1.01-1.64)와 0.1 이상(0.61-1.01)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Ⅲ.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와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차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했으며(각각 $t = 2.89$, $p < .01$; $t = 2.19$, $p < .05$), 여아는 남아보다 모의 행동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했다($t = -2.23$, $p < .05$).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t = -2.69$, $p < .01$). 부의 행동적 통제와 아동의 자율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남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 = -.21$과 $-.19$, $p < .01$)을 보인 반면에 부와 모의 행동적 통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 = .21$과 $.28$, $p < .01$)을 보였다. 둘째, 남아의 자율성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43$, $p < .01$). 그리고 남아의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 = 415)

	남아(n = 208)						여아(n = 207)					
	1	2	3	4	5	6	1	2	3	4	5	6
1	-						-					
2	.07	-					-.11	-				
3	.51**	-.05	-				.57**	-.08	-			
4	.00	.57**	.07	-			.03	.56**	.07	-		
5	-.15*	.24**	-.15*	.33**	-		-.27**	.34**	-.27**	.14	-	
6	-.21**	.21**	-.19**	.28**	.43**	-	-.30**	.28**	-.26**	.11	.62**	-
M	1.82	2.64	1.93	3.11	2.64	3.02	1.68	2.67	1.81	3.27	2.65	3.17
SD	.50	.76	.57	.74	.36	.54	.48	.77	.60	.73	.46	.56

주) 1 = 부 심리적 통제, 2 = 부 행동적 통제, 3 = 모 심리적 통제, 4 = 모 행동적 통제, 5 = 아동의 자율성, 6 = 아동의 자아존중감

*p < .05. **p <. 01.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모두 r = -.15, p < .05)을 보인 반면, 부와 모의 행동적 통제는 남아의 자율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 = .24와 .33, p < .01)을 보였다. 여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 = -.30과 -.26, p < .01)을 보였으며, 부의 행동적 통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28, p < .01)을 보였다. 둘째, 여아의 자율성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62, p < .01). 마지막으로, 여아의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모두 r = -.27, p < .01)을, 부의 행동적 통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4, p < .01)을 나타내었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자율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2.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로 구분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의 통제와 모의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남아의 경우, 모의 행동적 통제(β = .26, p < .01)만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4%였다. 즉,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아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아의 경우, 부의 행동적 통제(β = .26, p < .05), 부의 심리적 통제(β = -.21, p < .01)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6%였다. 즉,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가 높고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와 모의 통제의 회귀분석(β) (N = 415)

독립변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남아(n = 208)	여아(n = 207)
부 심리적 통제	-.13	-.21*
부 행동적 통제	.05	.26**
모 심리적 통제	-.14	-.12
모 행동적 통제	.26**	-.16
R^2	.14	.16
$F(df)$	7.95(4,207)***	9.88(4,206)***

*p < .05. **p < .01. ***p < .001.

3. 남녀 아동의 자율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남녀 아동의 자율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하여(각각 β = .43, β = .62, p < .001), 자율성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 설명력은 각각 35%와 18%로 여아의 경우가 남아보다 높았다(표 3).

〈표 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율성의 회귀분석 (β) (N = 415)

독립변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남아(n = 208)	여아(n = 207)
자율성	.43***	.62***
R^2	.18	.38
$F(df)$	46.25(1,207)***	125.53(1,206)***

***p < .001.

4.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남녀 아동으로 구분하여, 부와 모의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표 4). 부와 모의 통제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 가운데 모의 행동적 통제(β = .31, p < .001)만이 남아의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5%였다. 즉,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아는 스스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와 모의 통제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부의 행동적 통제(β = .32, p < .001)만이 여아의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9%이었다. 즉,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아의 자율성은 높게 나타났다.

〈표 4〉 남녀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부와 모의 통제의 회귀분석(β) (N = 415)

독립변인	아동의 자율성	
	남아(n = 208)	여아(n = 207)
부 심리적 통제	-.09	-.14
부 행동적 통제	.05	.32***
모 심리적 통제	-.13	-.16
모 행동적 통제	.31***	-.03
R^2	.15	.19
$F(df)$	8.60(4,207)***	11.47(4,260)***

***p < .001.

5. 부와 모의 통제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부모의 통제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율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와 모의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와 모의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인인 부와 모의 통제와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율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부와 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효과 검증을 하기 위한 기본 가정으로서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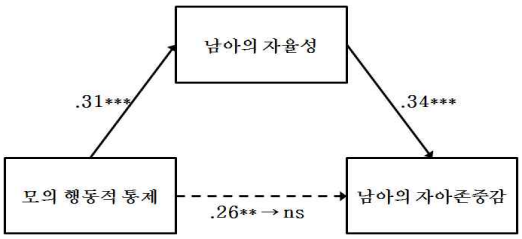
〈표 5〉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와 모의 통제와 자율성의 회귀분석 :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β) (N = 208)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남아의 자율성	남아의 자아존중감	남아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통제			
부 심리적 통제	-.09	-.13	-.10
부 행동적 통제	.05	.05	.03
모 심리적 통제	-.13	-.14	-.10
모 행동적 통제	.31***	.26**	.16
남아의 자율성			.34***
R^2	.15	.14	.23
$F(df)$	8.60(4,207)***	7.95(4,207)***	12.37(5,207)***

**p < .01. ***p < .001.

하는데, 본 연구 변인들 가운데는 남아와 여아 각각 3가지의 경우가 이에 부합하였다. 이 중 매개분석을 통해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경우, 표 5에서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율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와 모의 통제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의 행동적 통제는 자율성(β = .31,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의 행동적 통제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6, p < .01).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와 모의 통제와 남아의 자율성을 투입했을 때, 모의 행동적 통제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26, p < .01 → β = .16, ns). 즉, 남아의 자율성은 모의 행동적 통제와 남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여, 모가 행동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남아는 자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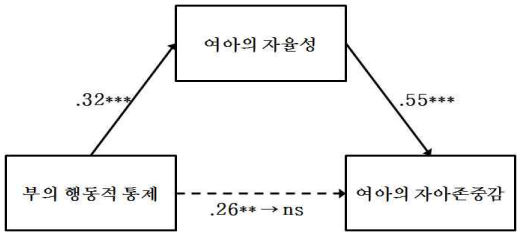
〈그림 1〉 모의 행동적 통제와 남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여아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부의 행동적 통제, 여아의 자율성,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있어, 부의 행동적 통제는 여아의 자율성(β = .3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부의 행동적 통제는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6, p < .01). 마지막 단계에서, 부의 행동적 통제는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26, p < .01 → β= .08, ns). 즉, 여아의 자율성은 부의 행동적 통제와 여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여, 부가 행동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여아는 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졌다(표 6, 그림 2).

〈표 6〉 여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와 모의 통제와 자율성의 회귀분석 :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β) (N = 208)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남아의 자율성	남아의 자아존중감	남아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통제			
부 심리적 통제	-.14	-.21*	-.13
부 행동적 통제	.32***	.26**	.08
모 심리적 통제	-.16	-.12	-.03
모 행동적 통제	-.03	-.16	-.00
남아의 자율성			.55***
R^2	.19	.16	.41
$F(df)$	11.47(4,206)***	9.88(4,206)***	27.50(5,206)***

*p < .05. **p < .01. ***p < .001.



**p < .01. ***p < .001.

〈그림 2〉 부의 행동적 통제와 여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후기의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통제 및 아동의 자율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자율성이 부모의 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남아의 경우, 모의 행동적 통제만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여아의 경우는 부의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여아는 아버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음으로써, 부의 통제와 모의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성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연구결과들(박영애·정옥분, 1996; 장경문; 2011;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과 이성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김수희·박성연, 2009)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령후기 아동은 이성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딸을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으며,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서 일상 행동들을 지도·감독할 때,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지도 · 감독할 때,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자율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 아동 모두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높은 자율성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들(김희화, 2009; Allen et al., 1994; Owen et al., 1996; Smetana, Campione-Barr, & Daddis, 2004; Soenens et al., 2007)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령후기 아동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삶을 주도해 감에 따라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로의 전환을 앞둔 학령후기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자율성 획득이라는 발달과업의 성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와 모의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남아에게는 모의 행동적 통제만이 여아에게는 부의 행동적 통제만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아동의 자율성 발달에 있어 이성 부모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통제와 자율성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이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앞서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언급하였던 선행 연구결과들(김수희 · 박성연, 2009; 박영애 · 정옥분, 1996; 장경문; 2011;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결과 간의 관계라는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 발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성부모는 자녀의 영역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학령후기 아동이 자율성 획득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통제의 일부 하위요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율성은 매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의 자율성은 모의 행동적 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여아의 자율성은 부의 행동적 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능감을 느끼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아는 여아보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위험이 더 높고, 신체, 인지 및 정서 등 전반적인 발달 속도가 늦으므로(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8),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남아는 여아보다 읽기장애, 과활동성, 정서적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적 문제에 취약하며(Halpern, 1997; Henker & Whalen, 1989), 이러한 발달적 취약성은 아동의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기 쉽고, 일상적으로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하는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아의 발달에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쉽다(Litovsky & Dusek, 1985).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일상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것은 남아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율성과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 아버

지가 행동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에게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지도 및 감독을 받은 여아는 자율성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가 여아의 자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아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는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과 사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Dekovic & Meeus, 1997), 본 연구결과는 학령후기 여아의 자율성 발달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지도 및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이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아버지로부터 인식할 때 이는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McCormick & Kennedy, 1994)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가 여아의 경우에만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요약하면, 아동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성 부모는 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자율성은 남녀 아동 모두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성 부모의 행동적 통제의 경우 자율성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학령후기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행동적 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보다는 온정과 관심을 포함한 지도 및 감독과 같은 행동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부와 모 각각의 긍정적 양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령후기 아동의 부-녀관계 및 모-자관계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더욱 더 강조될 수 있다. 더욱이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와 자율성 가운데 자율성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의 자율성 발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아동이 보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보고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 특히 부모의 통제와 같은 변인의 실제를 파악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또래 등의 보고자와 면접, 관찰 등의 다양한 조사 방법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친 부모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부모 통제가 남녀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재하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남아의 자율성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의 통제와 여아의 자율성에 대한 모의 통제의 설명력(R^2)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실천적 유의미성을 해

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측정을 동일한 시점에 측정했기 때문에 세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후속 연구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남녀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 및 아동의 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둘째, 학령후기 아동에게 중요한 양육행동의 차원인 통제적 양육행동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각 양육행동 요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뿐 아니라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자율성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학령후기 아동의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은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자율적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학령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수희 · 박성연(2009).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01-113.

김연희(2005).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용희(2009).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4**(1), 107-124.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6-61.

김지현 · 도현심 · 신나나 · 김민정(2011).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17-232.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김희화(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의 형향. **청소년학연구, 12**(4), 151-168.

김희화(2009). 청년 초기의 자율성과 적응 간의 관계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155-175.

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B.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 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박영애 ·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7**(1), 181-212.

소미강(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도희 · 박귀화 · 정재우(2008). 자율성 지지, 기본적 욕구,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315-338.

윤지은 ·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37-251.

이미리(2005). 청소년 초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변인들의 관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Ⅱ,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4-R01-1.

이 숙・우희정・김미란(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3**(1), 64-72.

이지인・박성연(2008). 어머니의 애착경험 및 심리적 통제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3), 175-189.

임지영(2008). 부모의 권위감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 중국과 미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17**(6), 1115-1124.

장경문(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초등교육연구, 20**(1), 164-179.

장경문(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장윤옥・전귀연(199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4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등교육연구소, 145-166.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1), 101-121.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 문제 :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정윤주(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부모 이외 애착대상의 수용-거부, 행동통제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47-959.

정희욱(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443-458.

조주연・도현심 (2011). 부모 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2**(2), 15-34.

주인자(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성흔・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r, T. G. (1994). Longitudinal asse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rber, B. K., & Buehler, C. (1996). Family cohesion and enmeshment : different constructs, different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2), 433-441.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pp. 15-52).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4), 1120-1136.

Barber, B. K., & Shagle, S. (1992).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 A sociological analysis. *Family*

Perspective, 26(4), 493-515.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4), Serial No. 282.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Bean, R. A., & Northrup, J. C. (2009).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logical autonomy, and acceptance as predictors of self-esteem i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0*(11), 1486-1504.

Bekker, M. H. J. (1991). *The movable boundaries of the female ego.* Delft. The Netherlands : Eburon Academic Publishers.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Beyers, W., & Goossens, L. (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social adjustment and parenting : interactions,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2*(6), 753-769.

Block, J., & Robinson,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3), 909-923.

Coley, R. L., & Hoffman, L. W. (1996). Relations of parental supervision and monitoring to children's functioning in various contexts : Moderating effects of families and neighborhood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51-68.

Dekovic,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2), 163-176.

Garber, J., Robinson, J.,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3), 574-587.

Grolnick, W. S., Weiss, L., McKenzie, L., & Wrightman, J. (1996). Contextual, cognitive, and adolescent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1), 33-54.

Halpern, D. F. (1997). Sex differences in intelligence : Implications for education. *American Psychologist, 52*(10), 1091-1102.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275-385), New York : John Wiley & Sons.

Henker, B., & Whalen, C. K. (1989). Hyperactivity and attention deficits. *American Psychologist, 44*(2), 216-223.

Litovsky, V. G., & Dusek, J. B. (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373-388.

Maccoby, E. M.,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 John Wiley & Sons.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8). Mothers' and fathers' support for child autonom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4*(4), 895-907.

Noom, J. N. (1999). *Adolescent autonomy :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Delft The Netherlands : Eburon Academic Publishers.

Noom, J. N., Dekovic,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6), 771-783.

Owen, T. J., Mortimer, J. T., & Michael, D. F. (1996). Self-determination as a source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Social Force, 74*(4), 1377-1404.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Michael M.,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8.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C., Behnke, A., & Falcon Ⅲ,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6), 760-772.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1), 65-81.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13-128.

Smetana, J. G., Campione-Barr, N., & Daddis, C. (2004). Longitudinal development of decision making : Defining healthy behavioral autonomy for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5*(5), 1418-1434.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3 life domains :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34*(6), 589-604.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 Adolescent perception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 Psychology, 43*(3), 633-646.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y in the family :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304-313.

Steinberg, L., & Fletcher, A. P. (1994).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Pediatrics, 93*(6), 1060-1064.

Stipek, D. J., & Maclver, D. (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3), 521-538.

2011년 6월 30일 투고, 2011년 9월 26일 수정
2011년 10월 4일 채택